



U-20 월드컵 전에 마무리할 서학동 예술촌 화단(왼쪽)과 조기 완료된 다가공원 강당재 도로.

전주시 도로정비 '막바지'

U-20 월드컵 대비 각종 사업 조기 완료
중화산동 다가공원 강당재 도로 전면 개통
전주IC 진입 교차로 조성 등 내일 마무리

전주시가 추진해온 도로정비사업 등 각종 공사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오는 20일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시는 온통 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U-20월드컵 개막에 맞춰 전주의 주요관문인 전주IC 진입 교차로와 삭고개 교차로 등 교통섬 2곳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IC 진입 교차로와 삭고개 교차로에는 각각 수목 4000여 그루와 2000여 그루가 식재돼 고속도로와 서부우

회도로 등을 통해 전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산뜻한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아중역을 한옥마을과 아중호수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키기 위한 아중역 시타기단 조성공사와 서서학동 예술촌의 침체되어 있는 가로녹지변에는 곡선형태의 다양한 계절꽃이 있는 화단을 만들어 화사한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서학동 예술촌 가로녹지 조성사업도 U-20월드컵 개막에 앞서 모두 끝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좁고 사고위험이 있어 불편했던 다가공원 강당재 도로

확장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총 1억 4000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중화산동과 완산동을 잇는 다가공원 주변 소로인 강당4길 145m 구간을 기존 폭 4m에서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5m의 도로로 확장했다.

이밖에, 시는 중앙동 궁구거리로 교통체증이 없고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고, 대외공식지정호텔인 라마다호텔 주변 도로정비를 위해 추진해온 대동로 확장공사도 오는 22일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곳곳에서 추진중인 각종 도로건설사업과 공사를 대회 전까지 완료해 시민들에게는 경기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를 제공하고,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원광대 실험실 화재 발생 교수·학생 50여명 긴급 대피

원광대학교에서 불이나 학생과 교수 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오후 11시26분께 원광대 공과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25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층 실험실 30㎡가 타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교수와 학생 등 53명은 화재경보음을 듣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실 기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 '뮤직뱅크' 공연... 무료 입장권 불법거래 성행 경범죄처벌법 따라 벌금 20만원... 온라인상 거래는 처벌 못해

전주에서 오는 19일 열리는 인기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 공연 입장권을 놓고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해당 입장권은 주최 측이 다수의 시민에게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매매가 이뤄지면 안 된다.

하지만 예소와 트와이스 등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일부 시민들이 가까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어렵지 않게 뮤직뱅크 전주 입장권 거래 게시글을 볼 수 있다. 통상 1장당 1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주최 측이 1인당 1장씩 배포한 것이 무색하게 10장을 판매한다는 글도 보인다.

이같이 무료 배포된 티켓을 매매하면 이른바 '양표'로 취급돼 경범죄처

벌법에 따라 벌금 2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상 거래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거래가 성사된 뒤 당사자들이 만나 티켓과 돈을 주고받는 현장을 잡아온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 불법 거래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3월 '인터넷 티켓 싸움', 양표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편 뮤직뱅크 공연은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90분 동안 전북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희귀 백혈병 앓던 9살 세영이... "끝내 하늘나라로"

희귀병인 '연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을 앓던 세영이가 지난 17일 밤 끝내 하늘로 갔다. 이제 겨우 9세이다.

전주에 사는 세영이는 지난해 11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골수이식을 받았다.

다행히 성공적인 수술이었지만 세영이가 몸이 숙주 반응으로 불리는 체내 거부 반응을 일으켜 비장(위장 기능)에 있으며 혈액을 걸러주는 기능을 함) 과사가 진행됐다.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맞아도 음식을 먹지도, 잠에 들지도 못하는 고통이 따랐다.

골수이식 후 체내 거부로 숨져

그럼에도 세영이는 담당 의사가 놀랄 정도로 잘 버텼다. 평소 좋아하던 축구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꿈을 잊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혈소판 수혈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AB형 혈소판을 수혈 받아야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영이 모교인 전주남초등학교까지 나서 지정수혈을 호소했다.

이런 딱한 사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도움을 주겠다는 전

화가 세영이 부친의 휴대전화로 빔발했다.

하지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던 세영이는 지난 밤 아픔이 없는 곳으로 떠났다. 작은 몸으로 버티기에 지친 고통이 너무 컸다.

세영이 부친인 김성진씨는 "세영이가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좋아하던 축구를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며 말을 흐렸다.

장례식은 전주 대안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후 1시, 전주 모악장례문화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뉴스

안전처, 범정부 폭염대책 발표 냉방시설 갖춘 4만여곳 '무더위 쉼터' 지정

올 여름기온 평년 23.6℃ 상회... 폭염 TF팀 구성
119 구급차 1352대 등 응급구급체계 마련

정부가 올 여름 폭염 취약계층의 특별관리를 위해 무더위 쉼터 4만여곳을 운영하고 쉼터 냉방시설에 84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15개 중앙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7년동안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0.4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폭염일수도 10.5일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2016년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059명의 열열질환자(사망 11명)와 가축 210만3000마리, 어류 612만3000마리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열열질환자는 연령별로 50대(21.0%), 장소로는 실외 작업장(27.3%)이 가장 높고 사망자는 60세 이상(62.1%)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범정부적 폭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자원선지수, 불쾌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한다.

폭염 취약계층의 특별관리를 위해 전국 4만2922개(전년 대비 103%) 무

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한다. 재년도 무미 13만5865명(전년의 105%)을 활용해 독거노인, 취약주민의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무더위 쉼터 냉방시설에 예산 84억 원(전년의 105.7%)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해 냉방시설이 구비된 곳만 쉼터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표지판 정비와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무더위 쉼터의 위치정보와 운영시간 안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국 무더위 쉼터의 자체 정비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6월 초 중앙합동점검 등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 119구급차 1352대와 소방차를 활용한 캠퍼런스 1203대, 열음조기 등을 확보해 응급구급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 530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노·노(老·老)' 케어, 농촌지역 폭염 감시원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세대간 상호 폭염피해예방 협력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 이상기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도심지내 열섬완화와 직사광선 차단 등을 위해 도시녹화, 그늘길 조성,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등 인프라 조성을 시범 추진한다. /뉴스

전주 원도심 공동체학교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원도심에 대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상인·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전주 원도심 공동체학교'를 개설하고, 공동체 학교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한다. 이번 원도심 공동체학교는 노송동과 중앙동, 풍남동 3개동 일부(1.43㎢) 지역을 대상으로 열린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 주도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도적 주민조직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본과정과 그룹과정, 자립대회로 구성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아이디어와 가치의 공유, 사업계획의 수립까지 함께할 수 있어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들의 능동적인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전주 원도심 공동체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주민공동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체학교에는 원도심 주민과 상인, 지역 청년 등 전주시 원도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공동체로서의 삶을 꿈꾸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19일까지다. 또,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수시접수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전화(063-232-5119)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jeonju_urban)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